

COVID-19 이후, 비대면 수업 및 진로·취업 지도에 대한 전문대학생의 인식과 개선 요구 분석

최진숙¹, 김대명¹, 김유경², 진선미³, 하정윤^{1*}

¹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²순천제일대학교 언어치료과, ³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 & 외식조리과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Needs for Improvement of Non-face-to-face Classes, Career, and Job Guidance after COVID-19

Jin-SookChoi¹, Dae-Myung Kim¹, Yu-kyung Kim², Seon-mi Jin³, Jung-Youn Ha^{1*}

¹Division of Childhood Education, Suncheon-Jeil College

²Division of Speech & Language Rehabilitation, Suncheon-Jeil College

³Division of Coffee Barista & Catering Cooking, Suncheon-Jeil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업과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과 진로·취업지도 영역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재한 S전문대학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비대면 수업에서 상호작용의 양과 질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비대면 상황에서의 진로·취업 지도는 지도 기회가 제한되면서 진로와 취업 관련 고민을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대학 생활에서도 교수의 지도와 안내가 필요한 전문대학 특성 상 상호작용할 기회가 축소되어 대학생활 전반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상황 시, 교육활동 전반에서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저하가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과 진로·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전문대학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과 진로·취업 지도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classes, and career and job guidance at professional universities, if the current non-face-to-face situations persist in the long ter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0 sophomores from specialized university S (located in Jeollanam-do) to confirm the need for improvement in classes and career and job guid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both the amount and the quality of interactions in non-face-to-face classes have been challenging. Second, career and job guidance in non-face-to-face situations has not been able to fully resolve career- and job-related concerns due to the now-limited opportunities for guidance. Third, in college life,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have been reduced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universities that require guidance and guidance by professors, making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adapt throughout their college lives. In the case of non-face-to-face situat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gradation of interactions across educational activities actually causes difficulties in preparing students for classes, careers, and employ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le continuation of non-face-to-face situations in the future, professional universities must come up with more specific and diverse practical policy improvements.

Keywords : Non Face To Face, Classes, Career Guidance, Job Search, College Student's Perception

본 논문은 2020년도 순천제일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 Jung-Youn Ha(Suncheon-Jeil College)

email: hajy9615@suncheon.ac.kr

Received April 6, 2021

Revised April 30, 2021

Accepted July 2,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최근 고등교육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핵심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히 대학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실제 역량이 함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다[1,2]. 이런 점에서 대학은 학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다양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과 진로·취업 활동이라는 점에서 대학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진로·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6].

하지만 2020년 대학은 전례 없던 혼란과 큰 변화에 직면하였다. 수년 전부터 예견된 학령인구의 급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이 COVID-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는 그간 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던 대학의 주요 활동을 제한하며,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교육을 시작하게 하였다[7,8].

특히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일반대학에 비해 더욱 컸다. 전문대학은 실무능력에 초점을 두고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면교육 중심의 현장 실무형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짧은 수업연한, 학력저하 문제 등으로 수업 이외의 진로와 취업, 학생지도 등 학생들과 다양한 장면에서 대면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9,10].

COVID-19로 인해 도래된 비대면 상황은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교육활동 전반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하였다. 첫째, 수업 측면에서 대면 수업과 같은 수준의 현장 실무중심 실습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COVID-19 사태의 비대면 교육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온라인 상황에서 더욱 방치시키며 이들의 학습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하였다[11]. 문제는 전문대학이 일반대학 보다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의 부정적 결과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 진로·취업 지도 측면에서 대면교육 상황과 같은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과 학교의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웠다. 비대면 상황은 학생을 대면할 기회를 제한하며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떨어뜨렸다[12,13]. 짧은 수업 연한 동안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은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각종 교내외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7,9,14,15] 비대면 교육상황은 이러한 교육활

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현장 실무 교육을 강조하는 전문대학은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비대면 수업 운영과 진로와 취업 등 학생지도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뉴 노멀 시대에 전문대학의 수업은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학습방법 변화, 학습 콘텐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전문대학에서 비대면 수업과 진로·취업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COVID-19 이전의 대면상황과 이후의 비대면 상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전문대학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비대면 상황에서 전문대학생들이 수업과 진로·취업지도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업과 진로·취업지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비대면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학생들에게 수업과 진로·취업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및 분석 틀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유행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효과적인 수업과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상황의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담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의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주제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의식과 감정 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16].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담도구를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COVID-19 전후인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과 진로·취업의 두 개 영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심층면담은 Table 1에 제시한 영역과 내용으로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면담대상 학생별로 개별 면담시간을 정하고 학생 1명당 약 40분 내외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전체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삭제하고 자체 식별 번호를 부여하였다.

Table 1. Research areas and research content

| Areas | Content |
|-----------------------|--|
| Classes | Education content, class Participation , participation in classes, assignments, examination, practical exercise, practical training etc. |
| Career and Job Search | Overall career and job guidance |
| College life | Personal psychology and overall college life |

2.2 조사대상

지도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교수자마다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전공 특성, 학생들의 입학 동기, 대학생활의 차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지도와 진로취업, 대학생활 지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남 동부권에 소재한 S전문대학의 세 개 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20명이다. 2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COVID-19 유행 이전과 이후인 대면 상황(2019년도)과 비대면 상황(2020년도)에 모두 대학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적과 성별 등을 고려하였으나 추가적인 세부 정보(지도교수 특성이나 전공 특성 등)는 고려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면담결과만을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ubject information

| Major | N | Gender | | Academic level | | |
|-----------------------|----|--------|--------|----------------|--------|-----|
| | | Male | Female | high | medium | low |
| Health care | 6 | 0 | 6 | 2 | 2 | 2 |
| Education and welfare | 6 | 0 | 6 | 2 | 2 | 2 |
| Natural science | 8 | 7 | 1 | 2 | 3 | 3 |
| Total | 20 | 7 | 13 | 6 | 7 | 7 |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Fig. 1).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범주 체계 도출 단계로 단어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자료원을 읽으면서 하위 요소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면담자료를 Colaizzi(1978)의 분석법[17]을 사용하였는데, 이 분석법은 자료원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

이나 문장 또는 구를 찾아내고 도출된 의미를 범주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원의 노드(Node) 분류 단계로 수업과 진로취업의 각 영역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1단계에서 도출한 범주 체계에 따라 노드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면담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NVivo는 연구자가 텍스트 자료를 프로그램 내에서 분류함으로써 질적 자료의 위계적 관계를 도출하고 결과를 제시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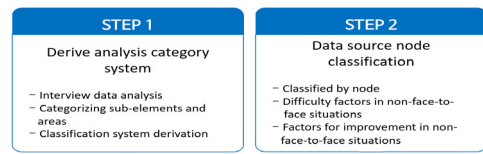


Fig. 1. Analysis stage of the study

3. 연구 결과

COVID-19에 따른 전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 및 진로·취업 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의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사항들이 확인되었다.

3.1 수업

3.1.1 비대면 상황에서의 어려움

가. 상호작용

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수업내용 뿐 아니라 과제 등 다양한 피드백을 교수에게 받을 수 있었는데, 상호작용의 횟수가 줄고 질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교수와의 소통이 어려울 경우,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친구들과끼리 연락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할 때 상호작용이 훨씬 더 적어진 것 같기는 해요. 실시간으로 했을 때 비디오 켜기와 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디오를 꺼놓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비디오를 꺼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면 모르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질문을 해도 답변이 안 되는 경

우가 발생해요.”(A-3)

“과제를 할 때, 수업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수님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불편했어요. … (중략) … 대면 상황일 때와 비교해보면 과제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C-2)

나. 수업 몰입 및 자기주도 학습

대면 수업에 비해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 몰입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 참여, 수업내용 확인 등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학습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비대면 수업으로 차단되며 학습 전반에 곤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줌(ZOOM) 수업으로 공부를 하면 몰입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업 전반에도 신경 쓰지 않게 돼서 그 점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몰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했을 때가 상대적으로 집중이 잘 되었어요. 집중력 감소가 문제인 것 같아요.”(A-4)

“대면 수업 때보다 집중력이 감소한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학습하는 거니까 대면 수업 때처럼 교수님이 개별 지도를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C-2)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과제 작성, 예습이랑 복습도 했는데 집에서 비대면 수업이 끝나면 학습은 그 시점에 종료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면 수업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C-6)

다. 실습 과목

전문대학의 수업은 실습 과목의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실습 과목에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실습을 못하니까 그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실습을 해야 교수님 지도를 받아 실력이 좋아지는데, 실습을 안 하고 보기만 하면 거의 도움이 안돼요.”(B-2)

“실습은 집에서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재료를 교수님께서 나눠준다고 하시면 학교에서 받아가야 하는데 학교

자체에 오는 걸 막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거 같고요. 제과 제빵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사서 할 수는 있지만 오븐 같은 장비가 부족하고, … (중략) … 실습은 집에서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C-2)

라. 조별 활동

최근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면서 수업 중 조별 활동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에서는 조별 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조별 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급되었다.

“애들이랑 만나서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별 과제의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조별과제가 줄었는데도 수업실연 같은 게 있으니 만나서 해야 하는데 줌 활용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C-1)

“저희 과는 조별 리포트를 많이 내거든요. 대면 수업일 때는 조별 리포트를 낼 때, 서로 어떤 방식이나 물어보면서 맞춰가고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와주었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어려웠어요.”(B-3)

마. 온라인 접속 및 수업 장비

교수-학생 간, 학생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아니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환경 차이로 인한 상호작용의 어려움도 호소하였다. PC와 스마트폰 사양과 와이파이 여건에 따라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정보 전달이 잘 되는 편이었는데요. 비대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인터넷 연결 상태도 가끔씩 좋지 않으니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C-2)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면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교수님이 제 목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점이 힘들었어요.”(B-1)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줌이 다 막아지고 끊길 때가 있었어요. 수업 진행 중에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난감했어요.”(A-5)

“수업 동영상은 올려주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할 때도 있고, … (중략) …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구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B-2)

3.1.2 향후 비대면 상황에서의 요구

가. 다양한 상호작용 방법 적용

비대면 수업에서 호소했던 상호작용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줌 소회의실 활용이나 SNS를 통한 온라인 피드백 제공을 언급하였고, 학생 간에도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또래 멘토링 등을 통한 학습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피드백을 해주실 때, 카톡을 하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소회의실을 만들어 교수님을 초대해서 진행하면 팀원들이 함께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B-5)

“질문했을 때 교수님이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수업 후에 카톡이나 전화로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A-1)

“혼자 있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복습하기도 싫고 과제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데, 또래 멘토링 등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친구들이 서로 힘이 됩니다. 과제 마감 시한도 함께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며 미리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1~3교시까지 수업이면 오후에 수업이 없으니까 줌으로 만나서 공부하구요. 저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여러 개의 과목 중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과목 수업에 대해서 복습을 시켜주는 거죠. 설명해주고 다른 학생들 입장에 있는 애들은 질문도 해주고, 교수님 혼자서 수업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한 번 더 하나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B-2)

나. 비대면 수업 운영 방법 개선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수업은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대면 수업 방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MS를 활용한 수업 자료와 영상 업로드, 온라인 시스템 개선,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교수법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수업 동영상상을 따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대부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한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겠어요.”(C-1)

“LMS에 동영상이나 자료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잘 활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 (중략) ... 교수님들이 따로 단톡방에 공지를 하시거나 장비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수업을 할 때 오류나 소음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A-3)

“PPT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차례대로 읽어 나가기보다는 중간 중간 다른 방법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단순히 읽으면 솔직히 지루함이 느껴질 때가 많아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추가되면 좋겠어요.”(C-4)

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학습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비대면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저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의지가 약한 편이라서요. 그래서 수업도 좋지만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A-2)

3.2 진로·취업 지도

3.2.1 비대면 상황에서의 어려움

가. 취업지도

전문대학생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짧은 기간에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와 대면하여 직접 접촉하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COVID-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수와의 상담 횟수가 줄고 상담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충분한 진로·취업지도를 받기 어려워졌음을 호소하였다.

“작년에는 교수님에게 자주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학교 가는 횟수가 줄고, 가더라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지도받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A-2)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취업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할 때, 교수님께 하나하나 지도받으며 보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 어려움이 커요. 대면이면 즉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B-1)

나. 취업 관련 정보 습득

취업을 강조하는 전문대학 특성상 학과와 대학에서 취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으나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진로나 취업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취업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상담도 요청 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도 바쁘시다보니 일정이 맞지 않다보니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걱정도 앞서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B-6)
 “취업 면접할 때, 말투나 몸짓, 미소를 잘 보여줘야 하는데,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배우기에는 한계가 많아요. 비대면으로 계속 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더라도 면접을 보러갔을 때 이런 부분의 정보나 체험 기회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C-4)

3.2.2 향후 비대면 상황에서의 요구

가. 다양한 방식의 취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비대면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졸업 시기가 다가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취업 상담과 취업 정보를 교수와 학과, 대학이 제공해 주길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민이 없는 학생은 없는데 비대면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속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에 담아두는, 말 못할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상담이 많아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A-1)

“친구들을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지도교수님 뿐만 아니라 대학 내 대학일자리센터 일자리 컨설턴트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C-3)
 “취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과 학생들은 숫자가 많은데 가고 싶은 곳이 다르거든요. 학과, 취업지원처, 대학일자리센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B-5)

“2학년이 되면 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취업도 해야 하고 성적도 잘 받아야 하고 하나씩 그런 점에 있어서 걱정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주시면 좋겠어요.”(B-3)

나. 개별 취업 상담 제공

대면 상황에서는 교수와 유관 부서에서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비대면 상황에서는 정보 제공 횟수도 적을 뿐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취업 상담을 제공해 주길 요청하

였다.

“지금 취업과 관련해서 고민 없는 학생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 상담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라든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1대1로 만나 상담을 한다면요.”(C-6)

“상담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도 없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진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말을 해야지만 고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많이 해결되면서 앞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방향도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B-3)

“전화나 줌도 1:1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1:1로 영상통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을 통해 1:1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A-5)

4. 결론

전문대학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는 현장 실무형 수업과 학생들의 취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에서 효과적인 지도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해 수업과 진로·취업지도에 어려움이 초래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에서 학생들의 인식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전의 대면 상황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서 실시간 온라인 혹은 동영상 수업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면서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SNS나 전화로 진행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토로하였다. 둘째, 진로·취업 측면에서는 대면 상황에서 교수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나 취업 정보를 습득하였으나, 비대면 상황에서는 접촉이 제한되면서 고민이 있을 때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활 차원에서도 교수의 지도와 안내가 많은 전문대학 특성상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프로그램 참여, 대학과 학과 생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로 시작된 전문대학에서의 비대면 상황은 수업은 물론 진로와 취업,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능력과 진로·취업 의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참여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따라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 축소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특성상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매우 중요하다. 즉, 향후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이나 학과, 교수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공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상황은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 차원에서 수업 및 학습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 운영 측면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번거롭고 불편한 시스템은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더욱 떨어뜨리게 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 즉, 비대면 수업과 같은 e-learning은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 어렵고 불편한 플랫폼 선택 시 교수와 학생들이 잘 활용하지 않게 되고 교육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중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대학 차원에서 제공되지 못하면 온라인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용성을 평가하여 안정적이고 유용한 플랫폼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질 높은 수업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콘텐츠로,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그냥 책 그대로 읽어주는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다', '온라인으로는 심화수업이 불가능하다' 등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현재 대학생들은 중·고교 과정을 거치면서 질 높은 인터넷 수업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콘텐츠 개발 방식은 전문 인력에 의한 방식보다 담당 교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교수자들은 플랫폼에 올릴 교수학습 자료의 준비에 요구되는 노력과 시간이 실제 대면 수업을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소비된다. 온라인 콘텐츠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콘

텐츠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다. 콘텐츠 개발의 비전문가인 교수자들의 비대면 수업 콘텐츠 제작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는 온라인 콘텐츠 구성에 집중하고, 기타 콘텐츠 개발 및 기술적 지원은 전담부서의 전문 인력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의 한계점으로 집중력 부족과 학습내용의 결손을 꼽았으며, 과제 및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온라인 학습의 부작용 문제로 대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과제 및 시험 관리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수업 집중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낮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질, 눈과 허리의 신체적 피로감, 스마트폰 등의 방해 요인 차단의 어려움, 시스템의 오류 등이 있었으며,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에게 많은 자유를 제공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학습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학습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교수자와의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인 만큼 시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시관관리 전략에 초점을 맞춰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습계획을 세우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관리 전략을 활용하면, 짧은 훈련으로도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비대면 상황에서 교수자-학습자간 원활한 상호작용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해 동영상 시청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온라인 수업을 원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대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시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현저히 저하된다.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 만족감을 경험하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 일방향 정보전달이 아닌 학습 활동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업 설계방안을 교육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을 공유·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전문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 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업과 진로·취업 영역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과정적 측면으로 대면 방식과 달리 비대면 상황에서 실제 학생들이 수업과 진로·취업 준비 측면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분명한 진로취업 목표가 적을수록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남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2학년 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설문조 사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혼합연구를 진행한 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것 을 대비하여 대학과 유관부서, 교수자 차원에서 보다 구 체적이고 다양하며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이나 진로·취업 지 도 측면에서 전문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효과 적으로 대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J. W. Ko, H. J. Kim, M. S. Kim, "The impact of students' college experiences on students' cognitive and on-cognitive outcomes, and instruction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9, No.4, pp. 169-194, 2011. UCI : G704-000511.2011.29.4.003
- [2] K. S. Choi, "Development of the college curriculum using the competency-based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10, pp. 464-478, 2010. UCI : G704-001475.2010.10.10.002
- [3] S. Y. Son, J. Y. Lee, "Development of career guidance competency model of college profess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2, No.2, pp.99-120, 2019.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9.06.32.2.99>
- [4] H. N. Lim, J. H. Kim, O. K. Cho, S. D. Nam, Y. R. Yu, ... M. S. Kang, Strategic Planning for the Advancement of the Teaching-Learning Quality in Higher Education(VI), Research Repor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p.176-226.
- [5] M. W. Lee, H. J. Jang, G. Y. Lee, D. Y. Kim, "A need analysis of 4-year university faculty's career guidance competency to cope with job mismatch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52, No.1, pp.67-95. DOI: <http://dx.doi.org/10.23840/agehrd.2020.52.1.67>
- [6] Y. K. Lee, K. S. Lee, "Research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Korea's Junior colleg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69-90, 2010 UCI : G704-000975.2010.29.2.013
- [7] D. J. Lee, M. S. Kim,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23, No.3, pp.359-377, 2020. DOI: <https://doi.org/10.15702/mall.2020.23.3.359>
- [8] S. C. Lee, S. Y. Kim, S. H. Park, "An early assessment on Korean universities' response to COVID-19: a case of KNU's untact class eval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0, pp.993-1019, 2020.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0.993>
- [9] K. S. Choi, "Development of the college curriculum using the competency-based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10, pp.464-478, 2010. DOI: <http://dx.doi.org/10.5392/JKCA.10.10.464>
- [10] K. S. Choi, Y. C. Lee, "Measures to reduce students' withdrawal rate : a case study on college 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1, pp.979-987,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11.979>
- [11] H. S. Kim, "Why should we go to school?: the impact of online semester on freshme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32, No.4, pp.651-678, 2020. DOI: <http://dx.doi.org/10.17927/tkjiems.2020.32.4.651>
- [12] S. A. Shin, O. B. Kim, J. I. Park, E. J. Kim, T. W. Chung, Exploring the Direction of University Lectures in the Post-Corona Era : Focused on Analysis of Mid-semester Lecture Evaluation Data Mining and Semantic-network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6, No.5, pp.195-228. DOI :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195>
- [13] S. Y. Song, H. K. Kim,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and persistent intention to take non- face-to-face co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1, No.4, pp.1099-1126, 2020. DOI : <https://doi.org/10.15753/aje.2020.12.21.4.1099>
- [14] H. J. Kwak, E. H. Koh, "A case study of faculty advisor's non face-to-face counseling during coronavirus incubation period: SNS Counseling Applied Photovoi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1, pp.202-209, 202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1.202>
- [15] J. Y. Jung, "A Study on the method for quality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in the post corona",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Vol.33,
No.3, pp.171-192.

DOI : <https://doi.org/10.35283/erft.2020.33.3.171>

- [16] Y. C. Kim,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 p.685, Moonumsa Publishers, 2006, p.121-147.
- [17] F. U.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358,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48-71.

최 진 숙(Jin-Sook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석사)
- 2016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다문화, 특수교육

김 대 명(Dae-Myung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사)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8년 2월 : 광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정책, 여성교육, 직업교육

김 유 경(Yu-Kyung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과 (언어치료학사)
- 2004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이학석사)
- 2008년 8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이학박사)
- 2013년 3월 ~ 2018년 2월 :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치료, 조음음운장애, 청각장애

진 선 미(Seon-Mi Jin)

[정회원]



- 200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공학석사)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공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교수

<관심분야>

궁중요리, 전통병과교육, 바리스타

하 정 윤(Jung-Youn Ha)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학사)
- 2015년 8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2월 ~ 2015년 8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2015년 9월 ~ 현재 :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행정, 고등교육, 성과관리